

탈냉전 초기 중국의 대미안보전략

이 원 봉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미 안보전략 |
| II. 중미 안보관계와 이론적 적용 | VI. 결 론 |
| III. 동아시아정세변화와 미국의 대중국안보전략 | 참고문헌 |
| IV. 장쩌민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부상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안보전략(security strategy), 중미관계(relation of China-America), 중국의 대미안보전략(China's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신안보관(new security strategy),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국 문 요 약

냉전 종식 이후 중미관계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대미 안보전략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중국의 대미안보전략의 등장의 배경으로 연계이론적 관점에서 환경투입과 체제투입을 들 수 있다. 즉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대내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들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 장쩌민체제는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신안보관과 다자주의전략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책임 대국(大國)'을 통해 중국이 평화지향적인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이중적인 대미전략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해 왔다. 중국의 대미안보전략의 핵심은 주권문제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은 중미 간의 군사교류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미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변화는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초석이 되었다.

I. 서론

냉전 시기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핵심이었던 중미관계는 1969년 미국 닉슨독트린을 계기로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 당시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고 베트남전쟁에서의 철수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중미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¹⁾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협력지향적 대미전략은 대외전략의 핵심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1990년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국제사회의 지배국인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국견제와 중국부상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안보전략과 대미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²⁾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국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강되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 주변국들도 중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지배국가의 입장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중미관계의 양면성과 모순성이 확산되었던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하면 도전국의 잠재력이 크고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면 힘의 전이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배국과의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³⁾ 이러한 가능성이 냉전 종식 직후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힘의 전이 가능성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 현상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년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1)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 등장 이후 제기된 중국의 국가전략이념은 ‘개혁개방’이었고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대외적인 국가전략이념으로는 ‘평화와 발전론(和平與發展)’,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 등을 표방하였다. 덩샤오핑의 국가전략이념은 마오쩌둥의 혁명이념을 평화이념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사상해방’으로 평가되었다.
- 2)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중국 내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은 서구 국가들의 중국견제에 대해 직접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서구에 대항하지 않고 경제발전에만 전념하는 ‘도광양회’를 제시하였다. ‘도광양회’는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행동이 필요한 곳에서 행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울아카데미, 2007, p. 175. 또한 중국지도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중국의 역량을 키워야 하지만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천안문사태와 서구의 중국 압박은 ‘유소작위’ 이념의 등장배경이 되었다. 황병무 외, 「동아시아안보공동체」, 나남출판사, 2005, p. 112.
- 3)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pp. 372-374.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99, pp. 246-247.

본 논문은 냉전종식 직후 동아시아 안보정세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인 중미 간의 안보관계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전략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1990년대 중국은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신안보관과 다자주의 전략이 등장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에도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냉전 종식 직후 중국의 대미안보전략은 21세기 중미 관계와 중국의 대미안보전략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냉전 종식 직후 중국과 미국 간의 안보관계,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분석을 통해 21세기 중미 간의 협력의 방향, 중미 간의 충돌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미관계에 적실성이 있는 국제관계이론들을 중미관계와 연계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요인으로 대내적 요인, 대외적 요인 등을 연계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연계론적 관점에서 도출된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냉전 종식 이후 등장한 새로운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미 안보전략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의 중국의 장쩌민(江澤民)체제와 미국의 부시정부 간의 안보전략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미국 클린턴정부 시기는 대중국 안보전략의 성격 차이 상 1기와 2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미 양국의 안보전략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보의 범위는 주로 미중 양국 간의 외교와 군사 방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미 안보관계와 이론적 적용

냉전 종식 이후 중미관계와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실성 있는 국제관계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의 대외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일반적인 국가라고 가정하고 국제정치 일반의 이론적 가설을 원용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선택과 행동의 특수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전략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망을 하려면 보편적인 국제정치 이론과 중국이라는 행위자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상호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

한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구조가 결정적 요인인가, 또는 국내 정책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행위자에게 인지되면서 행위자의 정책이 결정된다. 결정된 행위자의 정책결정은 다시 국제사회의 구조와 체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 행위자의 선택과 결정인 대외정책은 외부적 조건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대미안보전략은 국제환경과

4) 보편적인 국제정치이론이 중국에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자료 소개와 분석은 서진영 교수의 다음 자료 참조.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2호, 2002, pp. 11-69.

국내적 조건의 상호작용이라는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연계이론적 관점에서는 연계행위의 시초단계와 종말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산출(output)고 투입(input)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한 시스템에서 행위가 시작되면 그 행위는 그 시스템의 산출이 되는 것이고, 이 행위가 다른 시스템 속에서 결과(반응)를 일으키면 그 반응을 일으킨 시스템 쪽에서는 투입이라 부르게 된다.⁵⁾ 혼합연계는 정체와 환경과의 산출-투입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로즈노우(James N. Rosenau)는 연계(linkage)를 분석단위로 잡으면서 "한 시스템에서 연유하여 다른 시스템 속에서 반응을 얻는 반복되는 행위 계기를 연계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⁶⁾

연계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주요한 대외전략과 대미 안보전략의 변화는 국내정치와 권력구조의 변화나 정책노선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왔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안보지역질서의 등장에 의해 중미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고 따라서 중국의 대미전략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로즈노우의 연계이론적 관점에서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1> 중국의 대미전략

	투입	정책 액터	산출
중국의 체제변화 중국의 부상 중화민족주의의 등장	⇒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 중국의 대미안보전략 모색	⇒ 중국의 책임대국론 중국의 신안보관 중국의 다자주의전략 중국의 대미안보전략
동아시아정세의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 중국위협론 등장	⇒		

한편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등장한 미국의 중국인식 변화와 중국건제전략은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세력전이이론(The power transition theory)의 전제는 패권국가와 그 동맹국가들이 협력하는 현존 질서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력의 변화에 따라 '힘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⁸⁾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

5) 그리고 연계행위가 처음 시작되는 쪽이 정체(polity)인가 또는 환경(environment), 즉 국제시스템인가를 구분하기 위해 정체투입(polity input), 환경투입(environment input)로 구분한다.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99, pp. 364-365.

6)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R. Barry Farr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7) 이경희, 「현대국제정치학」, 형설출판사, 1992, p. 79.

8)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정치사회는 정치질서가 없는 무정부상태로 보고 있다. 국가의 주권을 최상의 권위로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는 초국가적 권위가 작용하지 못한다. ② 국제정치질서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그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군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그 질서는 최강의 지배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는 본질적

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 간의 힘의 분포상태의 변화에서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찾으려는 국제정치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⁹⁾ 세력전이는 강대국의 세력이 성장해 지배국가의 힘을 능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력전이이론은 국력변화에서 지배권을 가진 강대국과 지배를 받던 국가 간의 지위전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국제정치질서의 변경을 상징하고, 바로 이러한 지배권 쟁탈전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¹⁰⁾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급속한 부상 이후 동아시아지역 내에서의 힘의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력전이이론은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힘의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정세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전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미 안보관계에 대한 분석의 틀로 적절성이 있다.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도전 국가가 만족 국가인가 불만족 국가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력전이이론에서 전쟁과 평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① 도전국의 크기이다. 도전국의 국력이 상승하여도 나라의 크기가 작으면 지배권 쟁탈을 위한 도전은 불가능하다. ② 도전국의 국력신장속도가 문제된다. 도전국의 성장속도가 빠르면 전쟁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③ 지배국의 위계구조 변화 수용태세가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 현명한 지배국은 신흥강대국과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국의 불만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준다. ④ 지배국과 잠재적 도전국과의 우호관계도 도전의 단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¹¹⁾

또한 세력전이이론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국가집단 간에 정치·경제 군사 역량의 균등분포가 이루어지면 전쟁의 확률은 높아진다. 평화는 지배국가와 도전국 사이에 국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장 잘 유지된다. 강자가 아닌 약자가 공격자가 된다.”는 가설을 제기한다.¹²⁾ 이런 가설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국력의 균형 또는 불균형 상태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오간스키의 전쟁의 개념에 전쟁보다 넓은 개념인 갈등의 개념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국력의 불균형이 반드시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전국의 만족과 불만족 상태 못지않게 도전국 지도부의 형세 판단과 의지도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계이론적 관점에서 냉전 종식 직후 중미관계와 중국의 대미전략을 분석하고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중미관계의 미래와 갈등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를 더욱 심층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속성으로 지배권 장악을 위한 위계 상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③ 각국의 국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의 힘의 차의 가변성은 세력전이이론의 핵심이 되는 ‘힘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전제이다. 이상우, 전게서, pp.231-233.

9)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pp. 338-376.

10) 현대사회는 산업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국의 국력 차는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지배권을 장악한 국가와 도전국가와의 갈등 속에 지배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력전이이론으로 국제정치의 변화를 가장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우, 전게서, pp. 234-235.

11)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p. 89.

12)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p. 370.

Ⅲ. 동아시아정세 변화와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

1. 동아시아정세의 변화와 의의(환경투입)

1990년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냉전구조가 무너졌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질서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보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대두하였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아시아지역은 냉전 종식 이후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인 행태와 유동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냉전종식에 따른 힘의 분포 및 세력균형의 변화에 기인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소련 몰락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냉전 종식 직후 동아시아의 안보정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냉전시기의 세력균형적 갈등의 잔존 ②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서 역내질서 지배 ③ 중국의 급부상 등이다.¹³⁾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정세의 확산 속에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분위기도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지역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은 이미 냉전시기부터 일본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부상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 간의 교류의 증대를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⁴⁾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그에 수반된 다자주의의 확산은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지역협력과 안정에 공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⁵⁾

냉전종식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구도가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 강대국들은 초강대국인 미국을 지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 속도가 빠르고 중국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도전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속에서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한 상호의존의 심화는 중국 장쩌민체제의 동아시아전략과 대미전략 수정의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연게이론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동아시아정세의 변화와 같은 환경투입의 요인들은 중국이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전경만, “동북아 안보구도 전망과 신협력주의 구상”, 「국방정책연구」, 2006년 봄, 제 71호, pp. 9-12.

14) 동아시아지역은 이미 1993년 세계 GNP의 28.2%를 생산함으로써 서유럽이나 북미 3국보다 큰 경제 단위로 등장했다. 또한 1993년에 이미 세계 총무역량의 19.6%를 차지하였으며, 동아시아 총무역량의 45%가 역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원봉, “중국 강택민체제의 대외정책: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3집, 1998, p. 192.

15) 국제사회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주의의 등장은 유럽연합(EU)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미주지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지역의 아태지역경제협력(APEC), ASEAN+3,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이 지역주의 확산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체도 등장하였다.

2. 탈냉전 초기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환경투입)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미국 클린턴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4년 7월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여기서 미국은 '개입(engagement)과 확산(enlargement)' 전략을 수립하였다. 16)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한국 방문 시 국회연설에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① 미군의 계속 주둔과 안보공약 유지, ② 대량과괴무기의 확산방지 노력, ③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지지, ④ 공동의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적 지역대화의 촉진 등을 강조하였다. 17)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미국방성이 1995년 2월 발표한 후에 1998년 재차 발표한 「미국의 아·태안보전략」(U.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보고서에 표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에서 1994년 7월과 1996년 2월에 발표한 「관여와 확장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표명된 전반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을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이다.

「미국의 아·태안보전략」 보고서는 주로 동아시아에 적용될 우세전략의 안보정책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지도력을 행사하는 한편, 미국에 도전하는 강대국의 출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우세전략에 기초해서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더불어 기존의 쌍무적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적대적인 패권국의 출현을 억제하고 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18) 이러한 클린턴정부의 인권외교와 민주주의 확산정책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주권을 강조하는 안보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2)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의 양면성

1993년 클린턴정부 등장 직후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해 '포괄적 관여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관여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표방하였다. ① ARF와 동북아안보 대화와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에 중국을 건설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② 북한의 핵문제, 남중국해와 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분쟁과 같은 지역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의 협력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것, ③ 대량과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④ 미국의 경제이익에 부합되는 대중국 경제협력관계의 확립, ⑤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의

16)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 C: Governmental Printing Office, 1996. Feb. : 김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중국 정책", 시민정치학회, 「시민정치학회보」, 제4권, 2001, p. 240.

17) Clinton, Bill, "Fundamentals of Security for a New Pacific Community," Addres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1993 July 10.

18) U. 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1995 Feb.: 김현, 전제논문, p. 240.

지배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 ⑥ 마약, 환경보호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¹⁹⁾

미국의 '포괄적 관여정책'이 발표된 직후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국 내 인권개선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인권문제와 연계해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철회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²⁰⁾ 1993년 5월 로드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인권개선 노력이 없는 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조건부일 수밖에 없음을 전달하였다.²¹⁾

1993년부터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1993년 이후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공동 군사훈련을 조직하였고 호주와는 새로운 안보조약을 맺었다. 동남아 지역의 해상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사군도에서 중국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협정들을 맺었다.²²⁾ 이후 미국은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²³⁾ 1996년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감행하기도 하였다.²⁴⁾ 이후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공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1996년 중국과 대만 간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합의를 하여 1996년 4월 18일 미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²⁵⁾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세기 미·일에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을 봉쇄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국 억제정책은 아시아에서 10만 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특히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19) U. S. Department of State,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97.

20) 당시 미국정부는 대중국정책에 있어 상충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국무성과 무역대표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표명한 반면, 국방성은 군사교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Lie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Nov./Dec.), 1995. pp. 43. : 김현, 전제서, p. 243.

21) 또한 1993년 7월 미 의회는 중국의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안보연구원,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제 97-47호 참조.

22) Goldstein,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10-111. : 이삼성 2007, 전제논문, p. 15.

23) 실례로 미국의 이등회 총통 초청, 대베트남 금수조치 해제와 관계개선,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미국의 반대, 남사군도 주변의 항해에 대한 불허방침 선언, 인도와의 안보대화 강화, 대이란 핵기술판매에 대한 반대, 인권문제 제기, 대파키스탄 미사일판매에 대한 제재, 대만을 포함한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안 등은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정책들이었다. 홍규덕, "21세기 미·중 안보협력과 클린턴의 딜레마", 「IRI Review」, 고려대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6년 겨울, p. 27.

24) 도쿄신문의 11월 29일자 재인용 기사, '일본 보급함 미국항모에 첫급유', 「동아일보」, 1996. 11. 30.

25) 「The Washington Post」, 1996. 4. 26. : 당시 일본과 미국은 1996년 4월 3일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쌍무협정(ACS)의 내용에 완전 합의했다. 「미·일 쌍무협정 타결」, 「중앙일보」, 1996. 4. 5.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결국 클린턴정부 초기는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과 군사적 억제에 바탕을 둔 봉쇄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두 정책은 모두 우세전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중국을 국제질서에 통합시키는 한편, 중국의 호전적인 대외행태를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전략이었다.

클린턴정부 초기부터 진행되었던 중미 간 갈등관계는 1996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1996년 대만문제를 놓고 중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대만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턴정부는 ‘관여정책’을 협력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정부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에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간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²⁶⁾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1996년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추진하기 시작한 대중국정책은 ‘대중국포용(engagement)’ 전략이었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해 악화된 미·중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²⁷⁾ 이는 중국이 보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행동과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과의 국가 관계개선과 더불어 군사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려는 결정들을 내렸다.²⁸⁾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고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체제에 보다 깊숙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²⁹⁾

1997년 10월 30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간의 중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대결’ 보다 ‘협력’을 지향기로 합의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³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 장쩌민 주석의 방미에 대한 답방으로 1998년 6월

26) 1996년 7월 9일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앤서니 레이크 미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대만의 어떠한 독립 노력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의 중국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미국 하나의 중국정책 고수’, 「동아일보」, 1996. 7. 10.

27) 조셉 나이 차관보는 미국이 왜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정치적 투명성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③ 중미간의 교류는 중국군 지도부의 상황인식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④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인 돌발사건과 위험한 상호 오해를 피하고 대비해야 한다. 클린턴정부는 이러한 나이가 제시한 이유들을 들어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나이(Joseph Nye), “신세계 질서하의 미국과 아시아”, 「계간사상」, 1996년 여름호, pp. 178-83.

28) 홍규덕, ‘21세기 미·중 안보협력과 클린턴의 딜레마’ 「IRI Review」,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6년 겨울호, p. 9.

29) “Keep Heat o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7-28, 1996.

30) 양국 정상은 이 같은 기초에 따라 ▲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 ▲ 경제관계 확대 ▲ 주변정세 안정에 대한 협력 ▲ 마약·범죄·환경 등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위협 요인에 관한 공동보조 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해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든가 해상 사고를 예

25일 중국을 방문하였다. 상호 방문 결과 양국 간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하였다.³¹⁾ 또한 이는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대통령의 첫 중국 나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1998년 미국방부 「동아태전략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상호 신뢰구축을 넘는 안보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이는 탈냉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 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동아시아 지역에도 적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³²⁾

세력전이이론은 국제질서의 불안정과 전쟁의 요인으로 국력변화에서 지배권을 가진 강대국과 도전국 간의 지위전복,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국제정치질서의 변경을 상정하고 있다.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클린턴정부 초기 대중국 안보전략은 도전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중국견제 전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간의 균등분포를 방지하고 불균형 분포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중국견제전략이라 분석된다.

클린턴 정부 2기에 들어서서는 중국의 안보적·경제적 필요성을 중시하는 협력적인 '관여정책'을 중국에 대한 안보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르게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지배국의 위계구조 변화 수용태세가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 현명한 지배국은 신흥강대국과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국의 불만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준다. 그리고 지배국과 잠재적 도전국과의 우호관계도 도전의 단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에 부합하는 전략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수용한 결과인 것이다.

IV. 장쩌민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부상

1. 장쩌민체제의 등장과 과제(정체투입)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하였다. 중국의 장쩌민(江澤民)은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당총서기로 발탁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에 등장한 것이다. 자오즈양(趙紫陽)에 이어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최고 직위에 오르고, 1989년 11월에는 덩샤오핑으로부터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았다. 1993년 3월에는 국가 주석직을 겸직하게 됨으로써 당·정·

방하기 위한 양국 군부간의 협력협정 체결, 클린턴 대통령의 1998년도 방중을 포함한 양국 정부 각급인사들의 회담 정례화 합의등도 향후 양국관계가 대립 아닌 협력의 길로 접어드는 데 일보하였다. 「중앙일보」, 1997. 10. 30.

31) 이는 서로를 '가상의 적'으로 간주해 오던 인식에서 탈피, 대화와 협력 강화로 양국관계를 정상적 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서진영 2002, 전제논문, p. 13.

32) '신축적 운용전략'은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포괄적 개입'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포괄적 개입이란 지역 내 미군을 '지역 내 불안 요인을 줄이며 경제발전과 정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주한미군 '동아태방위' 활용", 「중앙일보」, 1998. 11. 3.

군 최고직위를 장악하게 되었다.³³⁾ 또한 적극적인 개혁개방주의자이었던 주룽치 총리의 등장으로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의 장쩌민체제는 미국 및 서방세계의 대중국 제재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³⁴⁾ 중국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미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덩샤오핑의 지원을 배경으로 등장한 장쩌민체제의 과제는 ① 경제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②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주변 환경조성, ③ 주권수호와 대만 통일, ④ 소수민족문제를 포함한 국내통합, ⑤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위협론 해소, ⑥ 대미 군사적 열세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전략모색 등으로 집약된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표방하였다. 중국은 이를 위해 지역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주변국들에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로 조금씩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지역 내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국 장쩌민체제의 과제 중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며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만문제, 소수민족문제, 인권문제 등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방해 왔다. 주권수호를 위해 장쩌민체제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중국군의 현대화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군현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당시 중국의 군사적 능력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³⁵⁾ 한편 장쩌민체제는 대외적으로 중국위협론과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해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위협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대미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잠재력과 크기, 국력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미국은 물론 일본에도 뒤져있는 상황이므로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보는 지배국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국의 위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된다.

2.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등장(정체투입)

중국은 영토, 인구, 역사 및 군사 등의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역내 강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10% 이상 증액, 외국 첨단무기의 구매, 남사군도 및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으로 인해 ‘중국변수’가 지역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

33) 이원봉, 전계논문, 1998, p. 186.

34) 특히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서진영, 전계논문, 2002, p. 12.

35) 중국군의 군사력과 기술수준은 미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 비해 뒤져 있다고 평가되었다. Bin Yu,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mplications for Asian-Pacific Security," *Asian Survey*, XXXIII : 3(March 1993) 참조.

향에 대해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주기 시작하였다.³⁶⁾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1990년대까지 연평균 9%선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매 7년마다 배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993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1993.5)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GNP를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여 1993년 당시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 3위의 규모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5년경에 일본과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⁷⁾

1993년 이후에도 중국은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GNP를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해 1997년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3조3770억 달러가 되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아래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 기준으로 중국이 인구나 국토, 그리고 경제규모에서 대국이 된 것만을 틀림없다. 그러나 1인당 GNP등 경제력의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개발도상국가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⁸⁾

<표-2>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 비교

(*)은 1997년도 기준 통계이고 ()은 세계 순위

국가	면적 (1,000km ²)	인구 (백만)	GNP(*) (億\$)	1인당GNP(*) (\$)	구매력기준GNP(*) 億\$
중국	9,597	1,227	10,554	860(145)	37,700(2)
대만	36	22	2,853	13,233(-)	-
한국	99	46	4,852(11)	10,550(53)	6,180(13)
일본	377	126	48,121(2)	38,160(4)	30,760(3)
미국	9,159	268	77,831(1)	29,080(10)	77,830(1)
세계	130,148	5,820	301,250	5,180	364,400

(출처: 三菱綜合研究所 編, pp. 206-306 : 서진영, 전게서, 2002, p.5.)

한편 중국의 경제적 부상 못지 않게 중국의 꾸준한 국방비 증가도 미국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1990년대 공식 국방예산의 두 자리 수 증액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서구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국방예산의 약 4배에서 7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과 비슷한 GNP 대비 3.5%에 달하며,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는 아시아 최대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³⁹⁾

36) 김태효, 전게서, 2003, p. 16.

37) IMF, *World Economic Outlook*(Washington DC: IMF), May 1993.

38) 서진영, 전논문, 2002, pp. 4-5.

39) 이에 중국은 중국의 국방비는 그 절대 액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수 없고, 중국의 국방예산의 증액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군비 증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있음을 강변하면서 자국의 군사비 증강이 방어적 대응임을 강조하였다. 서진영, 전게서, 2007, pp. 42-44.

<표-3> 중국의 국방예산(1992-2000)

	1992	1998	2000
국방예산(10억 달러)	4.5	11.3	14.6
전년대비 증가율(%)	13.8	-	14.6
GDP 성장률(%)	1.8	7.8	8.4

(출처: Global Security, *China's Defense Budget*: 중국국가통계국, 「제1차전국경제조사보고서」)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면서 현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위협론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렵이다. 1차 중국위협론은 1992년 제기 되었다. 먼로(Ross Munro)가 「깨어나고 있는 거룡, 아시아의 진정한 위협은 중국에서 온다」는 책을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 정치적 영향력 상승, 군사적 팽창으로 인해 아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⁴⁰⁾

중국의 부상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이나 패권주기론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세력전이이론에 의해서도 도전국의 급속한 부상은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의 패권추구 의지와 패권추구 능력 면에서 중국위협론의 적실성을 주장하였다.⁴¹⁾ 현대사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전쟁을 수행해 왔고 이는 중국의 패권추구 의지와 연계되어 주변국들이 중국을 경계해 온 배경이 되었다.⁴²⁾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는 도전국의 국력변화에 의해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지위전복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냉전 종식 직후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의 대두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도전국의 국력신장 속도와 지배국의 위계구조 변화 수용태세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종식 직후 중국과 미국에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해 지배국인 미국은 안보질서의 변화에 대해 수용적 태도보다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감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불만족 가능성이 대두하였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40) 1992년 이후 중국위협론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등장해 중국을 압박하여 왔다. 2차 중국위협론은 타이완 해협위기가 발생한 1995-1996년에 나타났다. 3차 중국위협론은 1998-99년에 나타났다. 미국은 「코코스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희욱, 전게서, 2007, pp. 76-77.

41) 이들은 패권추구 능력이라는 면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예산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방예산을 훨씬 초과하며 국방현대화 작업도 자국의 안보보다는 군사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권추구 의지에 대해서도 중국은 전통적으로 폭력지향적 전략문화를 유지해 왔고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중국위협론의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한석희, 전게서, 2008, p. 87.

42) 1949년 국가 수립 이후 중국은 안보목표를 달성하고 국익이 침해 될 때에는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인도, 러시아, 베트남과 국경문제를 두고 군사적 충돌을 치른 바 있다. 1960년대 중소분쟁 이후 중국은 핵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후 중국의 남사군도의 군사기지 건설, 지속적인 핵실험, 대만총통 선거 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시위 등은 중국의 군사력 과시의 사례이다. 이원봉, 전게논문, 2002, pp. 88-92.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⁴³⁾ 그러나 당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수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력상황을 종합해 분석해 보았을 때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지배국과 도전국과의 국력차가 클 때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명제를 확인할 수 있다.

V.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미안보전략

1. 중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대미 안보전략(정체산출)

1) 책임대국론

1990년대 초 동아시아의 역학구조의 변화, 미국의 중국견제 강화, 중국위협론 확산, 장쩌민체제의 경제발전의 과제 등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안정적 환경조성과 동시에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분위기를 재고시킬 안보전략이 필요하였다. 1992년 중국위협론이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에 부상하는 가운데 1993년 중국은 ‘책임대국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아닌 세계평화에의 기여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책임대국론을 통해 중국이 강조하는 강대국의 책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타국의 주권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서구적 민주주의 가치관을 통해 타국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는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었다.⁴⁵⁾ 중국의 가치관은 ‘국가의 주권과 국가 간의 평등, 패권주의 반대’로 표명되어 왔다. 중국은 중국의 가치관을 배경으로 한 책임대국의 입장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지역협력기구에 참여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한다.⁴⁶⁾ 중국의 책임대국론은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

43) 1990년대 초 이후 서구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는 반서구 감정이 확대되면서 민족주의 성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에 「중국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中國可以說不)」라는 책자가 발간되어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宋強等, 「中國可以說不」,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社, 1996.

44)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3년 11월 20일 미국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 모인 아태지역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결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아태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1993. 11. 22.

45) 덩샤오핑은 독립자주이념을 통해 국가주권과 안보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떤 시기, 어느 경우라도 한 국가의 주권은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어떠한 국가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黃東升, 「當代世界政治與經濟」,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2006. pp. 304-307.

46) 예를 들어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ARF, APEC, ASEAN+3과 같은 다자간 지역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중국은 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해 경제지원을 한 바 있으며 2003년 이후 등장한 2차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를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책임대국의 사례라고 주장한다.

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등장한 전략이며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책임대국론을 통해 아시아를 대변하는 국가로서의 중국의 가치관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책임대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공감을 얻어내어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책임대국대론은 1990년대 장쩌민 시기 신안보관이 등장하면서 핵심적인 전략이념으로 강조되어 왔다.

2) 중국의 신안보관

중국이 신안보관을 모색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2장과 3장에서 다룬 환경 투입과 체제 투입이다. 미국의 중국견제가 심화되고 중화민족주의기 부상하는 가운데 1996년 중국 내에서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신안보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된 ‘냉전 후의 국제안보와 중국의 대책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⁴⁷⁾ 중국 내 신안보관 논의 이후 중국의 신안보관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표방된 것은 1998년 2월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신안보관’을 언급하면서이다. 중국 국방백서는 신안보관에 따라 중국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들을 제시하였다.⁴⁸⁾

중국의 신안보관은 군사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관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신안보관에서는 공동발전,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자하는 의지를 열렬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중국은 아시아의 책임대국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안보관이 등장한 이후 장쩌민은 제시된 원칙 중 공동번영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 이는 중국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주변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지역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있음으로 표명하고 있다. 신안보관에서 군비경쟁 반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책임대국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열렬 수 있다. 주변 국가들과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공동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안보관의 의의는 다자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⁴⁹⁾

47) 중국의 안보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이계희, 「중국안보론」, 충남대학교출판부, 2004. pp. 15-20.

48) 구체적인 방향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국은 자기의 사회제도, 발전전략 및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지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외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③ 안보는 상호적인 것이고 안보대화화 안보협력은 신뢰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안보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다”. 中國國防部, 「2000年中國的國防」 2000. 참조.

49) 중국 장쩌민체제의 신안보관에 대해서는 다음자료 참조. 이원봉, “중국의 국가전략이념과 대외관계”.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1권 1호(통권22호), 2008.

3) 중국의 다자주의전략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다자주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었다.⁵⁰⁾ 그러나 중국은 주변국 중시의 신안보관 등장 이후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한 대응과 주변국들에 대한 협력 관계를 증시하는 국가전략을 지향하면서 다자주의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장쩌민체제에서 등장한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은 ‘신안보관’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이다.⁵¹⁾

중국의 안보전문가 왕은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을 ‘경제적 다자주의’와 ‘안보적 다자주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⁵²⁾ 1990년대 초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EC)과 같은 ‘경제적 다자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국은 아세안(ASEAN)+3, 아세안유럽회의(ASEM),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중국의 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로의 참여는 중앙아시아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1996년 4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지역에서 군사 분야 외 신뢰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로 참가하여 2001년 6월 다자간 협약인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창설되었다.⁵³⁾ 상하이협력기구 창설을 계기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위협론은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여 이후 안보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미국의 권유도 있었지만 장쩌민체제의 다자주의전략은 미국의 중국견제정책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데 그 중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서 중국의 다자외교가 적극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⁴⁾ 골드스틴은 1996년 이후에 중국이 대국화를 향한 대전략의 일환으로서 다자주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골드스틴은 중국의 다자주의 참여를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⁵⁵⁾

4) 소결론

1996년 이후 대두한 중국의 신안보관에서도 중국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국가들과의 안보대화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응하는 안보전략이며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회피하고 중국의 군사적 열세를 전략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50) Larry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Power Status", *Orbis* 38:2, 1944, pp. 157-175.

51)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金汕榮, 「多邊主義與東亞合作」, 當代世界出版社, 2006.

52)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40, No.3, 2000, pp. 475-491.

53) 황병무 외, 전계서, pp. 120-121.

54)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40, No.3, 2000, pp. 475-491.

55)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168, 2001. 참조.

또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모색을 통해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보전략이었다.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신안보관은 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아님을 밝히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지배국가가 지배하는 안보질서에 순응하는 입장을 정확히 표명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은 신안보관을 현실화하는 실천적인 전략이다. 중국의 다자주의에의 참여는 클린턴정부의 권유도 작용하였다.⁵⁶⁾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에서 국제제도를 중시하는 신현실주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전략은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며 동시에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중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1996년 신안보관과 다자주의전략에서 정립되었다. 장쩌민체제의 신안보관과 다자주의전략을 바탕으로 대미전략은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

2. 중국의 대미전략과 중미 군사교류(정체 산출)

1) 중국의 대미전략

장쩌민체제 중국의 대미전략의 특징은 미국의 중국 인권문제 제기, 대중국 경제제재 등에 강력히 반박하면서도, 국내 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는, 즉 저항과 양보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다.

1990년대 중국정치인이나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서구적 정치체제 혹은 가치관에 편입시키는 한편 러시아처럼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려 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바탕엔 「서화분화(西化分化)」의 음모가 깔려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 같은 불신감은 대미정책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 이른바 미국 클린턴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에 대해 중국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즉 무역, 핵확산방지, 인권문제, 대만정책, 환경, 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규범이나 규칙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관여정책의 목표라고 보았다.⁵⁷⁾

중국의 지도부는 ‘외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과장해 평가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계속하여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강력한 통일중국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⁵⁸⁾ 1995년 이후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56) 미국은 ‘포괄적 관여정책’에서 ARF와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에 중국의 건설적 참여를 목표로 제시하였다.(1993년 9월 고위급 대화) 미국은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이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데 합의하였고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을 타결하였다.

57) 이원봉, 전개논문, 1998, p. 186.

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⁵⁸⁾ 1995년 이후 중미 간의 갈등 사례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전략과 봉쇄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주변국들과 ‘동반자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⁶⁰⁾ 중미 간 안보관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1997년 9월 미·일간에 체결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이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적대화 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⁶¹⁾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 장쩌민체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미국과의 갈등은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정책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국력이 있어 미국에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는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클린턴정부 2기 이후 중국 지도부의 태도는 더욱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인 대미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위기 국면에 들기도 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전반적인 대미중시 외교노선은 일관되게 견지되어 왔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야 말로 중국의 핵심적 과제인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⁶²⁾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미국의 압력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다가도 중국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중국의 정책 일부를 양보를 해왔다.⁶³⁾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일련의 조치도 과감히 선보였다. 1997년 10월 중국의 장쩌민 주석의 방미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 외교부, 민항총국, 기계공업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장쩌민 주석 방미 전에 미국에 파견했다. 당시 중국은

58) 또한 “미국이 만약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힘의 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일보」, 1993. 12. 9.

59) 1996년 8월 26일 중국은 호전되고 있는 중·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에 대한 스틱어 미사일과 발사대 등 무기 판매계획을 취소하라고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중 무기갈등 고조”, 「국민일보」, 1996. 8. 27.

60)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① 1995년 대만 이등회의 방미, ② 1995-96년의 대만위기, ③ 1996년의 미일신안보지침 제정, ④ 1999년 코소보 전쟁 시 주유고 중국대사관에 대한 피폭사건, ⑤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시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⑥ 미국과 일본·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⑦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설치하려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등을 들 수 있고 이것들은 중국의 새로운 대미 안보전략을 모색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1호, 2003, pp. 22-23.

61) 장쩌민 주석은 9월 5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을 주시해 왔으며 중국을 겨냥한 양국 간 방위지침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미일 방위지침 개정 반대”, 「중앙일보」, 1997. 9. 6.

62) 미국은 중국 장쩌민 주석의 1997년 10월 29일 방미에 앞서 일부 반체제 인사를 석방토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당시 투옥되어 있던 왕만(王丹), 위정성(魏京生)의 병보석을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다. 김재관, 전개논문, 2003, p. 24.

63) “미국 중국 반체제 인사 석방 압력”, 「조선일보」, 1997. 10. 21

대대적인 구매활동을 통해 중미 간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중국의 가입원칙에 미국은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⁶⁴⁾ 중미 양국이 공동이해가 걸려있는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조로 관계를 확대시키는데 합의를 보았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중미 간 군사교류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은 천안문사태 직후 단절된 중미간 군사교류를 재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3년 클린턴정부 등장 직후 중미 간에 군고위급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추진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① 중국의 협력 유도, ②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③ 중국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3년 10월 미국은 단절된 중국과의 고위급 군사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핵문제 등 지역안보 문제와 중국 내 군수공장의 민수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프리먼 차관의 방중은 대중국 공세를 편 클린턴 대통령이 실제로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⁶⁵⁾

1994년 3월 미 국방부는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할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⁶⁶⁾ 발표 이후 양국 간 군사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이 급증하였다. 1994년 중국의 쉬세즈(徐惠滋) 부총참모장은 1994년 8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군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고 9월에는 미 공군참모총장 메릴 맥피크장군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회담을 가졌다.⁶⁷⁾ 1994년 10월 중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양국 군지도자들 간의 회담을 통해 아시아와 서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등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5년 3월 중국인민해방군 형광하이(雄光楷) 총참모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군사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다.⁶⁸⁾ 나이 미 국방차관보는 1995년 11월 14일 미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였다. 미국 나이 차관보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교류와 군사협력관계는 한층 발전되었다.⁶⁹⁾

중미 간의 군사교류는 1995년 해군협력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정책이 주로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현대화정책이 주로 해군력 현대화와 해군력 증강에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해군협력관계의 증진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던 것이다.⁷⁰⁾

64) 중국의 구매사절단들은 미국 각지를 돌며 자동차, 전력, 에너지, 화학비료, 항공 등의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대미 무역흑자로 인한 미국 측의 반발을 무마하고 중국이 장차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일보」, 1997. 10. 25.

65) 프리먼 미 국방차관은 199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까지 북경을 방문, 중국의 인민해방군 간부들과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미중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매일경제신문」, 1993. 10. 30.

66) 양국 국방관계 강화조처에는 또 공동지휘부 설치와 임시비행장 건설을 위한 두 나라 간의 군부대 협력, 국방산업의 민수산업 전용문제를 논의하는 「합동군수전환위원회」 설치,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Los Angeles Times」, 1994. 3. 7.

67) “미 국방 방중”, 「중앙일보」, 1994. 10. 7.

68) “중-미 군사교류”, 「동아일보」, 1995. 3. 23.

69) “미-중 군사교류 재개”, 「한겨레신문」, 1995. 11. 3.

70) 미국 7함대 소속 미사일순양함 병커힐호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1995년 3월 22일 중국을

이러한 대중국 군사관계 추진을 통해 군사적 측면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95년 10월부터 양국 해군함정의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양국 군사훈련에 관한 정보·기술교환 등에 합의하였다.⁷¹⁾

1996년 이후 양국 간의 군사관계는 군사적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국가안보전략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높게 조정되었다. 즉 북한핵문제 해결, 중국의 핵무기수출문제, 상호 군사전략적 투명성 등을 주요 문제로 하는 안보문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996년 3월 대만해협 위기 직후 미 정부는 중국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과의 화해는 물론 전략적 안보문제에 협력하기 시작하였다.⁷²⁾ 1996년 이후 중·미 양국 군사관계는 군사적 충돌 특히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은 1996년 11월 25일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기로 하는 「부조준(不照準)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협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 핵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³⁾

1997년 8월 10일 미국의 버거 미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과 로스 국무부 차관보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중국 방문 중 중국 측과 원자력 기술이전협정 문제를 비롯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⁷⁴⁾ 1997년 중국의 핵관련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핵원자로 수출 허용을 조건으로 중국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중국은 “중국은 더 이상 이란과 핵관련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였다. 1998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중국과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금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⁷⁵⁾

3) 소결론

냉전 종식 직후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은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전략으로 대응했고 미국의 협력요청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수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장쩌민체제 초기에는 과거 등소평의 도광양희와 유소작위의 국가전략으로 미국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전략이 변함에 따라 장쩌민체제는 새로운 대미 안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신안보관과 다자주의전략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일관된 안보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방문하였다. 중국대표단은 3월 말 재차 미국을 방문하였다. 홍콩의 「星島日報」, 1995. 3. 22.

71) 중국은 1995년 11월 25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이 10월 중국 방문 시 군사훈련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면서 양국 간 군사교류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중 해군함정 상호방문”, 「중앙일보」, 1995. 11. 26.

72) 삼불정책은 ① 대만의 독립 ②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③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73) “미-중 핵무기 비밀협상”, 「동아일보」, 1996. 11. 26.

74) 미국 측은 이와 관련, 중국 측이 핵기술과 미사일 등 군비를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 미국이 위험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들에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자 하였다. “미, 중국과 원자력기술 공유 검토”, 「중앙일보」, 1997. 8. 11.

75) 미국의 중국에 대한 4가지 사항은 ① 이란에 핵관련 지원포기 ② 이란과 계약한 순항 미사일 판매 포기 ③ 핵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공식적인 조치 이행 ④ 국제 핵기술 확산을 통제하는 쟁거위원회에 가입할 것 등이었다. 박원근, “클린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본 미중 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998년 겨울 제44호, pp. 196-197.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국력의 차이, 중국의 미국주도의 지역 안보질서에 대한 순응 등은 중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국력의 급성장으로 자신감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문제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충돌을 회피하는 안보전략을 모색해 왔다. 이는 종합국력에서 미국에 크게 열세에 있었던 중국이 지배국인 미국에 대해 최대한 도전국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한 안보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최대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도 영향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과 포용정책은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지배국의 위계구조 변화 수용태세가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 지배국과 잠재적 도전국과의 우호관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에 부합되며 그 결과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그 결과 1996년 이후 중미 간에는 지역안정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고도의 안보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VI. 결 론

탈냉전 초기 중국은 환경투입과 체제투입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새로운 대미안보전략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환경투입인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은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체제 투입인 중국 장쩌민체제의 등장에 따르는 중국의 새로운 과제의 등장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부상도 영향을 주었다.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의 필요성과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인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 공동안보협력과 전쟁방지를 통한 평화주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은 도전 잠재국으로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분포의 등장을 억제하고 불균형분포를 유지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1990년대 중국은 미국에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도전국이 아니라 도전 잠재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도전국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관여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 도전 잠재국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전략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중미 간의 심각한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 왔다.

1990년대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에 도전할 의사는 없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방어적 성격의 안보전략인 것이다. 당시 중국과 미국과의 국력의 차이는 매우 컸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세력전이이론에서 제기하는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세력불균형은 국제정세의 안정의 요건이다”라는 명제에 따

라 중국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세력전이이론에서 전제하는 도전국가와 부상하는 국가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부상하는 국가가 모두 도전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전 잠재국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지배국은 도전 잠재국의 가능성이 높을 시 이를 동일 시 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도전국이라 할지라도 세력의 균형 상태에서 반드시 지배국에 도전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분석할 시 도전국 지도부의 형세판단과 의지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해 왔다.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국제관계이론에 비추어 중미관계의 미래를 전망해 왔다. 에버리 골드스틴은 많은 국제정치이론가들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의 갈등 심지어 군사충돌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론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⁷⁶⁾ 세력전이이론적 관점에 따라 미래 중국과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전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해 미국과의 국력이 비슷해져 세력의 균등분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이 극도에 달해 중국 지도부의 도전의지가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의 부상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다.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2020년, 장기적으로는 2050년이 되어야 한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최소 2020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미 간에 국력이 유사해 지더라도 중미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 직접적인 충돌은 유보될 수 있다. 이는 21세기 초 부시정부 등장 직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 강화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9.11테러 이후 전략적 안보 협력의 필요에 의해 중미 간의 협력관계가 재등장 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지도부의 상황판단과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부 내에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해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와 시장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성향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도부내에는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한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중국전략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역내 경제적 다자주의는 물론 안보적 다자주의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⁷⁷⁾

76) 국가이익과 국력 지향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나 중국의 정치질서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정치체제론, 국제레짐의 형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중미관계를 비판적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자 및 다자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민감한 국가주권에 관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레짐이나 다자적 노력에의 접근을 기피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상호의존론과 핵평화론자들은 각각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사이의 점증하는 상호의존, 그리고 어떤 나라도 핵전쟁에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논거에 기초해서 중미관계를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경향을 보였다.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81-99;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2007년 제13권 1호, pp.9-10.

77) 국가 간 갈등이 개별 국가들의 이기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전통 현실주의로부터 국가 간 관계가 자아내는 국제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한 것이 신현실주의이다. 김태효,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4」, 2003. pp. 10-13.

21세기 초 미국 부시정부와 중국 후진타오체제에 들어서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양 국 간의 안보관계는 견제와 협력이라는 양면정책으로 규정되는바 이는 냉전 종식 직후의 중미 간 안보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5년 부시정부 2기에 들어서서는 초기에 비해 더욱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대중국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냉전 종식 직후 양국 간의 안보관계와 전략은 21세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부시정부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국의 필요성에 의한 중국과의 협력, 잠재 도전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이라는 양면적인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발전에 필요한 미국과의 협력, 미국의 중국견제에 대한 대응적 안보전략 또한 지속될 것이다. 다만 현실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관점들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양 국 지도부의 형세판단과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중미 간의 안보관계와 안보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 김동성. 「중국대외정책론:毛와鄧시대의 외교」. 서울: 법문사. 1988.
-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경남 대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19권1호. 2003.
- 김태호.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4」. 2003.
- 김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중국정책: 클린턴 행정부의 사례.” 시민정치학회. 「시민정치학회보」. 2001.
- 나이(Joseph Nye). “신세계 질서하의 미국과 아시아”. 「계간사상」. 1996년 여름호.
-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교문사. 1999.
- 박원근. “클린턴 대통령 반중을 계기로 본 미중 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998년 겨울 제44호.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2호 통권 27호. 2002.
- . 「중국외교정책」, 폴리테이아, 2007.
- 안종석. 「미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 외교안보연구원.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제 97-47호
- 이경희. 「현대국제정치학」. 형설출판사. 1992.
- 이계희. 「중국안보론」. 충남대학교출판부. 2004.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1999.
-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3권 1호. 2007.
- 이원봉. “21세기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경희대아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9권. 2002.
- . “중국의 국가전략이념과 대외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1권1호(통권22호). 2008.
- 이태환.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울아카데미. 2007.
-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연구」. 폴리테이아. 2007.
- 전경만. “동북아 안보구도 전망과 신험력주의 구상”. 「국방정책연구」. 제 71호. 2006.
- 차창훈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07.
-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서구와 중국 간의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1호. 2004.
- 황병무 외. 「동아시아안보공동체」. 나남출판사. 2005.
- 홍규덕. “21세기 미·중 안보협력과 클린턴의 딜레마”. 「IRI Review」. 고려대일민국제관계 연구원, 1996.
- 楚樹龍 王在邦. “關於國際形勢和我對外戰略若干重大問題的思考”. 「現代國際關係」8期. 1999.
- 鄧小平. “和平和發展是當代世界的兩大問題”. 「鄧小平文選(第三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 黃東升. 「當代世界政治與經濟」. 北京:中國經濟出版社. 2006.
- 黃仁偉. 「多邊機制 與中國的定位」. 時事出版社. 2007.
- 趙一明 外. 「鄧小平現代化建設思想研究」. 北京: 國防大學出版社. 1991.
- 金汕榮. 「多邊主義與東亞合作」. 當代世界出版社. 2006.
- 中國國防部, 「2000年中國的國防」. 2000.
-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0年中國的國防」. 2000.
- 李而炳. 「21世紀前期中國對外戰略的選擇」. 北京:時事出版社. 2004.
- 王逸舟. 「全球化時代的國際安保」.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9.
-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第1期, 2000.
-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 Clinton, Bill. "Fundamentals of Security for a New Pacific Community." Addres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July 10). 1993.
-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93).
-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R. Barry Farr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 Larry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Power Status". *Orbis* 38:2. 1944.
- Lie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Nov./Dec.). 35-39). 1995.
-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2.
- U. S. Department of State.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97.
- U. 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Feb. 1995.
-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40, No.3. 2000.
-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 C: Governmental Printing Office, Feb. 1996.
- Pollack, Jonathan D. "The Opening to America," in Den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China's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Post in cold war

Won-bong Lee*

With the cold war over, China and America faced a big change in their relationship. At that time, China tried to find out a new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In the light of Linkage Theory, China's new security strategy was created with environment input and polity input. In other words, it was affected by not only external factors but also internal factors; while the political change in East Asia and the change in U.S.' security strategy to China are external factors, the advent of a new leadership and rapid development of China are internal factors.

JiangZeMin administration adopted 'new strategy attitude' and 'multilateralism strategy' as its new security strategy. Declaring "Great China in Responsibility", China emphasized that they were in pursuit of peace. Based on this strategy, China could drive dual and flexible strategy to America. In relationship with America, China took a firm stance when it comes to sovereignty while trying to keep cooperation. It is sovereignty that lies in the core of China's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China's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developed military relation of China-America in 1990s. Security system in East Asia in 21C could be founded upon the changes in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merica and upon the alteration of China's security strategy to America in 1990s.

■ 논문접수일 : 2008 10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4일

* Associate Professor, Kyung Hee Cyber University